

# 광양시, 여성 안전·양성 평등 실현 앞장

### 양성평등위 열고 예산 증액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박차 올 62개 사업 334억원 지원

광양시가 여성의 안전과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광양시는 지난 27일 양성평등위원회 열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등 33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지난 9일까지 '광양시 성 평등기금모 지원 사업'에 접수한 9개 비영리 법인과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첫 해인 만큼 양성평등기금을 지난해보다 60% 늘어 4900만원으로 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할 62개 사업 334억 8600만원에 대한 정책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시간도 거쳤다.

시는 이번 위원회 심의에 따라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여성의 안전과 양성평등 실현, 여성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지난 27일 광양시청 회의실에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여성의 안전과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가 열렸다. <광양시청 제공>

지원사업에 선정된 광양시여성단체협의회는 회원들이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증을 취득해 한 부모 가정과 독거인 세대를 대상으로 집안 정리정돈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사)대한어머니회 광양지회는 노인 학대와 성폭력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댄스교실도 운영한다. 광양시 서부

여성자원봉사자회도 토요나눔 장터를 운영해 재활용을 활용한 생활의 지혜를 나눌 예정이다.

(사)소비자교육중앙회 광양시지회 역시 스마트폰이 확대 보급됨에 따라 신종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로당과 부녀자 대상 찾아가는 똑똑한 소비자교실을 운영한다. 또 지난해 12월 발족한 여성자율방범대

는 공모사업을 통해 여성안전을 위한 학교 근처와 우범지역, 취약지역 등을 돌며 순찰과 계도 활동을 시작한다.

광양 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충상담 프로그램 및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이와함께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은 여성전문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여성 창업자에게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등 여성의 경제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일·가정양립 지원 사업으로 아버지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하는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에 선정된 9개 단체에서 청소년과 여성,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과 취·창업,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적극 펼쳐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미흡하나 여성의 일자리와 창업 등을 함께 엮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2018년 동반성장 혁신허브 합동 발대식'에서 동반성장 혁신허브 공동위원장인 정현복 광양시장(왼쪽 두번째)과 김학동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청 제공>

## “올해도 성공적 동반성장 이룹시다”

### 광양시·광양제철·상의 등 ‘혁신 허브’ 합동 발대식

광양시와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등 주요 기업과 기관이 동반 성장을 다짐했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정현복 시장과 김학동 광양제철소장, 이백구 광양상공회의소회장이 21개 참여 기업과 기관은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동반성장 혁신 허브 합동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그동안의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 추진성과를 교환하고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뒤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의 성공적인 추진'을 약속했다.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은 2011년 광양시와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상공회의소 3개 기관이 시작해 협약 체결

을 시작으로 현재 131개 공공기관과 단체,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의 수익성 향상, 행정기관의 사무능력 개선 컨설팅 지원 활동이 주를 이룬다.

올해 혁신 허브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는 시 안전총괄과 등 3개 부서와 이안파워텍(주)을 포함한 중소기업 15개사, 광양보건대, 한국항만물류고, 광양사랑병원 등 총 21개소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동반성장 혁신 허브 활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 성장의 가치를 실현해 오고 있다”며 “발대식을 통해 모두가 하나의 지역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 할아버지·할머니가 들려주는 전래동화 인기

### 자원봉사팀 ‘무지개’ 매달 1회 희망도서관서 동화구연

광양 ‘희망도서관’에는 매일 낮때 주 금요일이 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는 아이들이 북적인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전래동화를 들려준 주인공은 동화구연자격증을 취득한 60세 이상 어르신 16명으로 구성된 동화구연 자원봉사팀 동아리 ‘무지개’이다.

광양시 최초 어린이도서관인 희망도서관이 무지개 동아리와 함께 도서관을 방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들을 위해 전래동화를 읽어주고 전통놀이를 함께 체험하는 ‘뽀! 무지개’ 프로그램을 월 1회 운영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첫 프로그램에는 보은어

린이집과 광양아카데미어린이집 원생 70명이 참여해 전래동화 ‘황금보따리’를 듣고, 창작 동화연극과 전래놀이 ‘동대문을 열어라’를 체험하는 등 어르신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사진>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은어린이집 원장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실감나고 따뜻한 전래동화와 함께 몸을 비벼가며 즐기는 전래놀이까지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질 않는 모습에 행복했다”며 어르신들의 노력과 봉사정신에 감사사를 전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지역의 어르신들과 함께 전래동화를 들으면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뽀! 무지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희망

하는 어린이 기관에서는 매일 둘째 주 월요일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wangyang.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1-797-4297 /광양=김대수기자 kds@

## 6월부터 ‘초등생 100원 시내버스’ 운행

광양시는 광역교통망 무료환승 시행일에 맞춰 오는 6월 1일부터 ‘초등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동친화도시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기존의 초등학생들은 교통카드를 이용해 100원을 할인받아 550원을 부담했으나, 6월 1일부터는 550원을 할인받아 100

원만 부담하면 된다.

시는 이번 ‘초등생 100원 시내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1400만 원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지난 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전남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은 데 이어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금 또는 타인의 카드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편의점 등에서 교통카드를 구입해 할인을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kwangju.co.kr

## 익산산단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

### 2020년까지 90억 투입 건립 道·市 등 뿌리산업 육성 협약

광양시 광양읍 익산산단에 ‘금속가공 열처리 지원센터’가 건립된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읍 익산일반산업단지 내에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을 위한 ‘금속가공 열처리센터’ 건립을 위해 전남도, 광양시, (재)전남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남의 주력산업이기도 한 금속가공은 전남 동부권에 산업기반이 풍부하나 단순 생산가공 위주와 열처리 관련 기업의 부재로 제품개발과 기술경쟁력이 타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다.

또 외주 가공을 위해 김해와 창원을 이용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로 기업의 부담이 됐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오는 2020년까

지 국·도비 60억원을 포함한 총 90억 원을 투입해 6800㎡ 부지면적에 6개 동의 열처리지원실과 진공로 등 9종의 대형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뿌리산업 집적화 등 특화단지로 지정된 익산산업단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동활용시설과 공동혁신활동 사업 지원·공모를 추진해 열처리 기술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시장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삼균 광양시 기업지원팀장은 “이번 열처리 지원센터 건립이 외주 가공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예방은 물론 275개의 금속가공 기업이 기술지원을 통해 제조업 제품의 품질향상과 연관기업 유치로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oticon PEOPLE FIRST

##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한 달간 보청기 무상 대여”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모든 방문 고객 선물 증정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64채널  
충전형 보청기  
호환 출시!

NEW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동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 062-364-8800